



KOB.A 2018

제28회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 개최

28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Media, Connected Everywhere)”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삼성동 COEX 전시장 A, C, D홀(27,277spm) 및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28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8)가 총 32개국 927개 사가 참가하고 41,616명(KOB.A 2017 : 40,191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올해 KOB.A 기간에는 5월의 날씨답지 않게 비가 왔지만 날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KOB.A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KOBA 개막식 및 기념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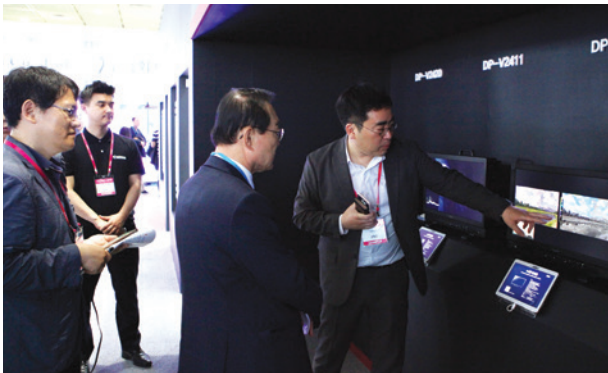
KOBA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 한국방송협회 양승동 회장, EBS 장해량 사장, OBS 박성희 사장, CBS 한용길 사장, 아리랑국제방송 이승열 사장, 한국음향예술인협회 김영석 회장, 한국음향학회 유희종 부회장과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박종석 회장, 업계 대표로는 Sony Imaging Products & Solutions Area Sales Marketing 미야지마 카즈오 대표, 삼아지브이씨 인기환 사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개막 커팅식 후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전시장을 돌며, 미디어 및 관련 장비들을 참관한 후 개막 기념 오찬에 참석하여, KOBA의 개막을 축하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는 방송 이슈와 업계 흐름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KOBA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한다.”면서 KOBA의 의의와 국가적 미디어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KOBA 첫날 이후에도 관련 인사의 방문은 이어졌다.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강병중 회장과 김병근 사장,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 정부기관과 방송사에서 KOBA를 방문하여 첨단 방송기술과 동향을 경험했다.

KOBA 주요 이슈

올해 KOBA 역시 주요 이슈는 4K/UHD와 HDR, IP 기반 솔루션으로 관련 영상 및 전송 장비의 변화가 주를 이뤘다. 4K 60P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비롯해 4K HDR 지원의 방송용 모니터, 관련 프로세서와 컨버터, 라우터, 스위처 등 향후 방송기반이 될 UHD 환경을 구성하는 장비와 관련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다. UHD 전송 이슈인 SMPTE ST2110 표준은 현재 개발 중이지만 이미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어 부스마다 IP와 12G-SDI 지원 여부가 중요 관심거리였다. 기업 간 합병 및 인수로 인한 변화도 KOBA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 장비 브랜드의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전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이슈가 되었다. 방송사로는 KBS와 CBS가 전시 아 이템을 통해 방송산업 동향과 자사의 기술 등을 홍보하며, 시청자와 만나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의미를 두었다.





1인 방송미디어 특별관 & HiFi Audio 초대전

이번 KOBA 2018에서는 미디어의 주요 이슈인 1인 방송을 주제로 하는 특별관을 통해 관련 장비 전시와 생방송으로 KOBA만의 볼거리가 되었으며, HiFi 오디오 초대전을 통해서도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좋은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앞으로 이 두 전시는 KOBA에서 더욱 성장하여 관련 정보를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였다.

월드미디어포럼

15일 오후 2시부터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최된 월드미디어포럼은 'Broadcast and Media, Connected Everywhere!(방송과 미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다!)'를 주제로, 4명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할 미디어 산업에 대해 여러 주제와 토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Digital UK와 Amazon, SK텔레콤, IBM에서 자사의 최신 소식과 전략에 대해 강의하였고, 패널토크에서는 자유롭게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디어 이용과 관련 기술 변화를 통한 미디어 비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UHD를 주제로 하여 UHD와 IP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았다. 첫날 무료 공개된 307호의 'ATSC 3.0 Tech Insight' 세션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이해와 함께 TIVIVA 등 콘텐츠 전략, 미디어 동향을 살펴보고, 308호에서 올해로 4년째를 이어오는 'Pre-Engineer' 세션은 방송기술의 이슈를 가볍게 살펴보고, 방송 기술인이 되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되어 이제는 어느덧 KOBA 컨퍼런스의 필수세션으로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밖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블록체인의 미디어 산업 활용성과 클라우드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DI와 조명 등 경험에서 나오는 방송 제작 관련 강의도 최근 기술 변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18일에는 HDR 및 포스터프로덕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업계 이슈와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강이가 308호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업계 이슈인 HDR과 IP 워크플로우 관련 솔루션 및 구현 사례는 관심 있는 관객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고, AI, 5G, 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다양한 강의와 세션을 통해 방송의 진화와 관련 연계성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KOBA Daily News

KOBA 기간 발행되어 무료로 배포되는 KOBA 데일리 뉴스 역시 KOBA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전시장 및 컨퍼런스의 주요 이슈와 행사를 다루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 기술본부장의 기고를 통해 앞선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고, 플랫폼과 제작 워크플로우 등 동향과 함께 전시장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하여 KOBA의 소식을 공유하는 독보적인 매체였다.

